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⑩

2018. 4. 18.(수), 14:00~16:00

풍속화로 역사 읽기

윤 진 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문헌연구실장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대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업 시작 이후에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누리집(홈페이지) →교육→교육자료→강의 자료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⑩

풍속화로 역사 읽기

발 행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
TEL / (02)2077-9000
www.museum.go.kr
인 쇄 (주) 계 문 사 / (02)725-5216

풍속화로 역사 읽기

윤 진 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문헌연구실장

1. 풍속화는 사료史料다.

옛날로 돌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과 풍물이 그려진 그림을 풍속화라 부른다. 과거가 된 삶의 현장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주는 풍속화는 당시의 생활상을 살피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다. "형상을 보전하는 데에는 그림 보다 좋은 것이 없다[存形莫善於畵]"는 고전 속의 구절은 풍속화에도 예외가 아니다. 문자 기록으로 대신할 수 없는 실존의 모습은 풍속화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풍속화라 하면 조선후기에 유행한 김홍도金弘道와 신윤복申潤福의 그림을 떠올린다. 조선후기의 서민 풍속화가 그만큼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풍속화는 어느 시대에나 그릴 수 있고, 또한 그려진 그림이다. 예컨대 청동기시대의 암각화巖刻畵에도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삼국시대의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현실과 내세를 넘나드는 생활사의 이모저모가 그려져 있다. 고려시대 이후로도 삶의 역사는 대부분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오늘에 전한다.

이 강의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그림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풍속화에 관하여 알아보고, 풍속화에 비친 역사의 이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풍속화는 특정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시기에 걸쳐 살필 수 있는 그림이다. 다양한 인물들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겪는 공식적이거나 사적인 일상은 그 자체로 풍속화의 모티프가 되었다. 따라서 기록을 목적으로 그린 궁중기록화, 계회도契會圖, 교훈적인 내용의 감계화鑑戒畵, 일생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담은 평생도平生圖는 물론 이름 없이 살다간 촌부村夫들의 모습까지도 모두 풍속화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풍속화는 우리나라 생활풍속의 역사를 가장 입체적으로 기록한 사료史料로서 손색이 없다.

2. 조선전기 관리들의 풍속화, 계회도契會圖

조선전기의 풍속화라 할 그림으로는 '계회도'를 들 수 있다. 계회는 양반 관료들의 사교모임의 일종이며, 계회도는 그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록물이다. 계회도에는 모임의 장면을 그리고,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였으며, 간혹 만남의 취지를 글로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참석자의 수만큼 여러 점을 제작하여 각자 한 점씩 나누어 가졌다. 이를 통해 뜻깊은 만남에 대한 서로의 기억을 오래도록 공유 할 수 있었다.

계회와 계회도는 조선초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17세기 이후에는 계회의 빈도와 계회도의 제작 사례가 줄어들었고, 18세기에 이르면 퇴조의 경향을 보이며 막을 내렸다. 이러한 계회의 범주는 같은 관청의 동료, 국가의 주요 사업에 함께 참여한 관리들, 과거시험의 합격 동기생, 나이가 같은 관리들의 사적인 모임 등 폭넓은 만남의 기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전반기에는 계회도 이외에도 특별한 행사 장면을 담은 여러 종류의 기록화가 그려졌다. 그리고 그림이 전해주지 못한 모임의 취지 등에 관해서는 서문과 발문의 기록을 통해 보완하였다. 이런 기록화에 그려진 사람들은 모두가 실존 인물들이다. 기록화는 개별 인물에 대한 묘사는 물론 행사가 이루어진 공간을 주요 장면으로 보여준다. 그림과 글이 함께 있는 기록물이자 조선시대 풍속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림들이다.

- <중묘조서연관사연도中廟朝書筵官賜宴圖>, 1535년, 홍익대학교박물관
- <중묘조서연관사연도>, 18세기 모사, 고려대박물관
-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 1550년경, 국립중앙박물관

3. 효행 풍속 ; 세종의 백성교화 프로젝트

『삼강행실도』에 실린 그림들은 당시의 사람들과 소통한 가상의 풍속화이다. 특히 효자도 속의 장면들은 현실 생활과 다름없는 환경 속에서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효행풍속으로 이해되었다.

세종대왕이 편찬하게 한『삼강행실도』는 백성의 교화敎化를 위한 프로젝트였다. 1428년(세종 10) 세종은 김화金禾라는 사람의 아버지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백성들에게 형율刑律이 아닌 교화敎化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법과 형벌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세종은 그 대안으로 백성들에게 충·효·열의 윤리의식을 심어주고자 1434년(세종 16)『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백성의 교화를 위한 세종의 대안은 과연 성공을 거두었을까?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행실도의 그림은 과연 지식을 전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을까? 그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충・효・열의 가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을까?

『삼강행실도』는 충신, 효자, 열녀 등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수록한 책이다. 매 이야기마다 그림을 넣어 글을 모르는 사람도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일종의 효행 풍속화라 할 수 있는 그림들이다. 세종의 삼강교화론三綱敎化論은 조선사회에 뿌리 깊은 윤리의 전통을 확립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삼강에 대한 윤리의식은 20세기 초까지 한국사회의 가치관으로 고수되고 있던 실상을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삼강행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를 되짚어본다.

<『삼강행실도』,「효자편」속의 그림>

* <노래반의老萊斑衣> “노래가 색동 옷을 입다”
* <오맹문서吳猛蚊噬> “오맹이 모기에 물어 듣기다”
  ※ 일본 18세기,《이십사효도二十四孝圖》의 <오맹문서>
* <왕윤포부王閏抱父> “왕윤이 아버지를 업고 나오다”
* <곽거매자郭巨埋子> “곽거가 아들을 땅에 묻다”
* <석진단지石珍斷指> “위소가 허벅지 살을 베다”
  ※『오륜행실도』속의 <석진단지> / 전 김홍도, <석진단지>

4. 조선후기의 서민 풍속화

조선후기(1700～1850)에는 풍속화를 비롯한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라 일컫는 명작들이 나왔다. 이 시기에는 18세기 이후 이루어진 정치·경제적 안정과 실용을 지향한 실학의 대두, 서서히 싹튼 서민의식의 성장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서민이 그림 속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등장하였다는 데 조선후기 풍속화의 의미가 있다. 역사 속에 묻혔던 서민들이 화폭 위에 주역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전에 없던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서민이 등장하는 풍속화를 당시에는 속화俗畵라고 불렀다. 고상하지 못한 저속한 그림이라는 뜻이다. 다분히 양반들의 입장에서 붙인 이름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서화를 교양으로 추구하던 양반들의 시선에는 서민을 향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일까.

풍속화 속에 등장하는 서민들은 누구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네 계층으로 신분이 분화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풍속화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양반도 있지만, 주로 상민층이 많았다. 또한 천민을 제외한 전체 사회구성원은 사·농·공·상의 사민四民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사'를 제외한 농·공·상이 바로 서민 풍속화의 주인공들이 아닐까? 때맞추어 밭 갈며 농사짓고, 필요한 공구를 제작하며, 혹은 행상이나 장사로 생업을 이어가는 이들이다. 애환이 많았을 그들이지만, 풍속화 속에 그려진 그들의 모습은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고 있다.

(1) 윤두서, 서민이 주인공인 그림

윤두서尹斗緖(1668~1715)의 호는 공재恭齋, 본관은 해남, 윤선도의 증손자이다. 윤두서는 그림에도 재능이 뛰어났지만, 화가이면서도 현실적인 생각과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많은 실학적 소양을 지닌 자였다. 또한 서민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서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민풍속화의 문을 열었다. 윤두서가 자애로운 인품과 그림을 좋아한 사대부화가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윤두서 이전의 인물화를 보면, 은자隱者나 고상한 선비, 신선들이 등장하지만, 윤두서는 이러한 가상의 인물들을 현실 속 생활인의 모습으로 바꾸어 그렸다.

* 윤두서, <짚신삼기>, 18세기, 개인
* 윤두서, <휴식>, 18세기, 개인
* 윤두서, <자화상>, 18세기, 개인
* 윤두서, <나물캐는 여인>, 18세기, 개인
* 윤두서, <목기깍기>, 개인
* 윤두서, <석공>,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2) 조영석, 애정 없이 나올 수 없는 그림

조영석趙榮祏(1686~1761)은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화가이며, 호는 관아재觀我齋, 본관은 함양이다. 조영석도 윤두서의 뒤를 이어 서민들의 일상사를 뛰어난 관찰력과 소묘로 형상화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그림들이다. 조영석은 그림이 현실 속에 있어야 한다는 투철한 사실정신을 가졌고, 서민들의 삶을 애정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풍속화를 많이 그렸다. 현장에서 대상을 직접 마주하여 유탄柳炭으로 초를 잡은 뒤 수묵과 담채로 묘사한 그림들이 다수 전한다.

* 조영석, <바느질>,《사제첩儕臍帖》중, 18세기, 개인
* 조영석, <새참>,《사제첩》중, 18세기, 개인
* 조영석, <말징박기>,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조영석, <우유짜기>,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5. 조선후기 풍속화의 쌍벽; 김홍도와 신윤복

윤두서와 조영석이 이룬 풍속화의 전통은 조선후기의 김홍도金弘道(1745~1806 이후)를 비롯한 다음 세대의 화가들에게로 전승되었다. 김홍도는 도시와 농촌에서 노동하는 서민들의 모습에 주목했고, 신윤복申潤福(약 1758~1813 이후)은 도시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유흥문화의 단면에 관심을 두었다. 같은 시대와 사회상을 보면서도 두 화가가

추구하는 주제와 개성은 확연히 달랐다. 또한 조선후기의 풍속화에 나타난 군상群像들에는 여성들의 생활상도 들어 있어 다양한 삶의 단면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신윤복은 남녀 간의 연정, 양반과 기녀, 도시 뒤편에서 볼 수 있는 풍정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 남성 중심의 유교사회에 가려진 여성들의 존재감을 그림으로 기록하였다. 김홍도와 신윤복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서로 다른 사회의 단면을 보았고, 이를 수준 높은 화격畵格의 그림으로 승화시켰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풍속화는 내용의 사실성, 묘사의 현장성, 그리고 그림 속의 풍물이 보여주는 시대성 등을 뛰어난 조형예술로 성취해 낸 그림이라 할 수 있다.

(1) 노동과 교육, 그 현장을 화폭에 담다.

김홍도金弘道(1745~1806년 이후)는 호가 단원檀園이며, 지방 수령守領을 지냈다. 김홍도는 탁월한 개성과 조형감각으로 서민들의 진솔한 모습을 화폭으로 불러들였다. 특히 해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장면 묘사로 한국적인 풍속화의 전형을 이루었고,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사실주의 회화관을 구현하였다. 노동과 교육의 현장을 그린 <점심>과 <서당>은 서민들의 삶과 희망을 암시하는 주제의 그림이다.

* 김홍도, <점심>,《단원풍속도첩檀園風俗圖帖》,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김득신, <점심>,《풍속도병》, 1815년, 삼성미술관
  ※ 구한말의 인물사진
* 김홍도, <서당>,《단원풍속도첩》,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1910년대 서당 사진
* 김홍도, <자리짜기>,《단원풍속도첩》,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김홍도, <대장간>,《단원풍속도첩》,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김홍도, <경작도>,《병진년화첩》, 1796년, 개인

(2) 도시풍정, 활기찬 삶의 즐거움

신윤복申潤福(약 1758~1813이후)의 본관은 고령, 호는 혜원蕙園이며 도화서 화원을

지냈다. 신윤복의 화폭에는 양반과 기녀, 한량 등 다양한 인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신윤복은 탁월한 소묘력과 섬세한 필선, 화사한 채색을 통해 화폭 속의 인물들을 모두 그 시대상을 말해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부각시킨다.

* 신윤복, <연당야유蓮塘野遊>, 18세기, 간송미술관
* 신윤복, <외출>,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신윤복, <단오풍정端午風情>,《혜원전신첩》중, 18세기, 간송미술관
* 신윤복, <월하정인月下情人>,《혜원전신첩》중, 18세기, 간송미술관
* 신윤복, <야금모행夜禁冒行>,《혜원전신첩》중, 18세기, 간송미술관

6. 사인풍속화, 그림 안팎의 사연

사인士人은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를 뜻한다. 따라서 사인풍속화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양반이나 선비가 주인공이 된다. 사인풍속화에 포함되는 그림들은 조선초기와 중기의 사례가 많다. 기념을 위해 그린 그림, 당시의 세태를 풍자한 그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림, 일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그린 평생도, 과거시험의 장면, 그리고 조선후기의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모습 등 다양한 이야기 거리가 포함될 수 있다.

(1) '출세의 사다리' 과거科擧 관련 그림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의 합격이 최고의 출세이자 엘리트로 가는 길이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당면한 시험의 질곡과 비교한다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과거는 국가의 인재를 선발하는 주요 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화가 그려졌다. 과장의 풍경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지방에서 치러지는 초시初試에서는 무질서하고 부정행위가 만연하는 행태로 치러졌음을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풍속화에는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 김홍도, <공원춘효도貢院春曉圖>, 18세기, 미국 개인
*《평생도平生圖》중 <소과응시도小科應試圖>,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김준근, <과거장에 들어가는 선비>, 19세기,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
*《담와평생도淡窩平生圖》중 <삼일유가三日遊街>,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유가후하인등처하기遊街後下人等處下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 영조의 금지령과 풍속화

<주사거배酒肆擧盃>에는 금주령 속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잔술 한 잔씩을 마시는 관리들이 등장한다. 실제로 영조는 금주령을 자주 내렸다. 1757년(영조 33)의 <어제계주윤음御製戒酒綸音>과 1762년(영조 38)의 <어제경민음御製警民音>이 그것이다. <어제경민음>에는 위반자에 한하여 최고 효시형에 처한다는 초강력 경고안도 넣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당시의 풍속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후기의 부녀자들은 머리숱이 많아보이게 하려고 가체加髢를 만들어 썼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치풍조였다. 이러한 풍조는 신윤복의 <미인도>를 비롯한 여러 미인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후 영조는 1756년(영조 32) 가체사용을 금지시켰다. 사치풍조 방지를 위해서였다. 정조는 1788년(정조 12)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을 통해 가체를 금지하는 세칙을 만들었다.

* 신윤복, <주사거배酒肆擧盃>,《혜원전신첩》중, 18세기말~19세기초, 간송미술관
* 신윤복, <미인도>, 18세기, 간송미술관

(3) 선비와 여인에 얽힌 사연

선비를 연모한 여인이 야밤에 그 선비를 만나기 위해 처소에 찾아왔다. 전 신윤복의 그림 <서생과 여인>의 장면이 그런 장면인 듯하다. 선비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연모의 감정을 갖고 찾아온 여인을 대하는 선비의 태도를 율곡 이이李珥와 조광조趙光祖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 <이율곡李栗谷 서간>, 1583년, 이화여대박물관
* 전 신윤복,《풍속도첩》중 <서생과 여인>,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7. 풍속화의 어제와 오늘

어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근 몇 년간 대중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그림 10점을 선정하여 소개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10점 가운데 7점이 조선후기의 풍속화였다. 김홍도의 '씨름'과 '서당', 신윤복의 '단오풍정' 등이 앞자리를 차지했다. 절대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중들의 생각 속에 풍속화가 매력적인 그림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다.

조선시대의 풍속화는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본 추억 속의 그림이기도 하고, 정감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며, 우리 그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장르라는 점도 그러한 현상에 한 몫을 했다고 본다. 문자로 기록된 것만을 역사라고 이야기 하지만, 형상으로 남긴 시각적 기록도 훌륭한 사료(史料)가 된다는 점을 풍속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풍속화는 감상자가 그 시대의 사회상과 생활문화를 읽고, 공감하며 느낄 수 있는 그림이다. 문자가 아닌 조형으로 기록한 풍속화는 한 시대가 지나간 역사의 현장과 소박한 삶의 공간까지도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우리문화사의 값진 유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풍속화를 조선후기의 그림에만 묶지 않고,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화가들의 값진 노력의 산물로 보았다. 특히 조선시대 전반기의 그림들이 많이 전하지 않는 현재, 계회도를 비롯한 기록화가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조선전반기의 풍속화는 관료들이 그 중심에 있지만, 무엇을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해 그린 것인지 읽어내어야 할 대목들이 많다. 조선후반기에는 서민들이 풍속화 속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등장하며, 풍속화를 통해 서민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에서 풍속화의 의미가 남다르다.

풍속화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일까?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은 풍속화 속 장면들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가 모두 우리시대의 힘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듯이 저 풍속화 속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어제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는 옛 풍속화 속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몇 백 년 뒤의 세상에 어떤 풍속화 혹은 풍속영상으로 남을까? 어제의 풍속화를 보면서 떠올려 보는 물음입니다. 풍속화는 기록과 이야기가 있고, 풍부한 미감이 담긴 그림이다. 그림 속의 장면과 사연을 하나하나 읽어내어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 보는 것도 풍속화를 보다 재미있게 감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의 풍속화를 통해 현실을 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그림에 대한 자긍심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Note

Note

Note

【 2018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

- 운영 기간 : 2018. 1. 31.(수)~12. 12.(수). 매주 수요일
- 운영 시간 : 오후 2시~4시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강의 제목	강사	비고
10	4. 18.	**풍속화로 역사 읽기**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11	4. 25.	석굴암과 『삼국유사』	한정호(동국대학교)	
12	5. 2.	바람과 초원의 나라, 몽골	송의정(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칸의 제국 몽골' (4. 27.~7. 15.)
13	5. 9.	조선시대의 왕으로 산다는 것	신병주(건국대학교)	
14	5. 16.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계승범(서강대학교)	
15	5. 30.	왕릉 발굴 이야기	김대환(국립중앙박물관)	
16	6. 20.	고대의 장신구	함순섭(국립중앙박물관)	
17	6. 27.	두개의 별 두개의 지도: 다산과 연암	고미숙(감이당)	
18	7. 4.	조선 청화의 아름다움	방병선(고려대학교)	
19	7. 11.	음악과 춤을 사랑한 한민족의 음악 이야기, 국악	송혜진(숙명여자대학교)	
※ 교육시설 휴지기 등으로 인한 휴강입니다.				
20	9. 12.	함께 떠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여행	안진옥(갤러리 반디트라소)	특별전 '황금문명 엘 도라도 - 보물을 찾아서' (8. 4.~10. 28.)
21	9. 19.	공간 · 시간 · 인간의 이야기, 조선지도 500년	장상훈(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조선지도 500년' (8. 14.~10. 28.)
22	10. 17.	명성황후와 고종의 사랑과 죽음과 복수	박계리(홍익대학교)	
23	10. 24.	신라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	허형욱(국립중앙박물관)	
24	10. 31.	근대 미술의 이해	송희경(이화여자대학교)	
25	11. 7.	한국의 근대 건축	안창모(경기대학교)	
26	11. 14.	元 제국과 고려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특별전 '대고려전' (2018. 12. 4.~2019. 3. 3.)
27	11. 21.	고려 불교사상의 이해	최연식(동국대학교)	
28	11. 28.	동아시아 속 고려 불화	정우택(동국대학교)	
29	12. 5.	고려 후기 지성인의 현실인식	도현철(연세대학교)	
30	12. 12.	고려의 재발견	박종기(국민대학교)	

※상기 강의 일정은 강사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